



나는 '프로'이고 싶다

박에사더/KBS보도국 기자

지 난 7월 법원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다. 인사를 전후해 많은 판사들이 법원을 떠났다. 승진에 누락돼서, 박봉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등 이유는 다양했다. 해마다 점점 더 많은 판사들이 법원을 떠난다. 과중한 업무와 만족스럽지 않은 처우, 떨어져가는 법관의 권위, 그들이 법원을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좀 아쉽다.

진리의 마지막 판단자로서의 전문성을 소중히 지키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의사들이 파업을 했다. 불완전한 의료보험제도, 십수년씩 공부를 해야만 전문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의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약사들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 그들의 파업에도 이유는 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은 잘못된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한번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그 제도에 안주해오지 않았던가.

그런 그들이 갑자기 환자 곁을 떠난다면 그들에게서 우리는 전문인으로서의 냄새를 느낄 수 없다.

나는 기자다. 기자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려주는 일을 한다. 사람들은 우리의 기사를 통해 세상을 본다. 우리의 기사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약하나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가 잘 하면 세상은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고, 잘 못하면 세상은 나쁜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

많은 유혹이 있다. 사람들은 우리의 기사를 통해 권력을 더 얻고 싶어하기도 하고 돈을 더 벌고 싶어하기도 하고 나쁜 것을 감춰보려고도 한다.

취재를 나갈 때마다 이런 많은 유혹들 속에서

나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지만, 무엇이 이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정보인가 라는 한 가지 기준만을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욕심도 생긴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데스크의 입맛에 맞는 리포트를 만들어 칭찬도 받고 싶고, 정확한 한 개의 리포트를 하기보다 많은 리포트를 만들어 능력있는 기자라는 소리도 듣고 싶다.

하지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기자라는, 이 사회의 참 파수꾼으로서 인정이 아니던가.

나의 하루 일은 아침 7시에 시작된다. 출입처인 법원에 나가서 먼저 신문을 살펴보고 밤 사이 특이한 구속영장이나 특이한 기소는 없었는지 챙겨야 한다. 그리고 나면 법원에 들어온 소송과 판결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들을 찾아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리포트를 만든다. 9시 뉴스가 끝나는 밤 10시 가까이 되어서야 퇴근을 할 수 있다.

잡자는 시간 외에는 가족들 얼굴을 거의 볼 수 없는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친구도 없어지고 연애할 시간이 없어 결혼도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자생활을 시작한 지 4년, 처음의 결심이 조금씩 무디어지고 예전의 열정과 흥분도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나는 지금도 내가 단순한 직장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승진을 못하더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판사로서 정년을 맞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도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역시 복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기자, 그 정신을 지키는 진정한 프로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